「하얀 호텔」의 여운 속에

〈본협회 회원〉 권 오 욱

먼저 나의 졸작「하얀 호텔」을 애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듣는 동안 어느만큼의 공감이나 위안을 드릴 수 있었다면 무척 기쁘겠읍니다. 길다면 긴 한 달간의 연속 방송을 끝낸 지금, 아직「하얀 호텔」의 여운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여운 속에 난 행복할 수 있읍니다.

사람들은 내게 그글을 쓰게 된 동기를 묻습니다. 그 때 마다 난 대답합니다. 가장 큰 동기는 "쓰고 싶었던 거"라고. 어쩌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를 이 이유가 내겐 진실인 겁니다. 크고 작은 집안일들, 남편의 시중, 그러한 무수한 일들 속에서, 아니 부족함이 없는 남편의 아낌 속에서, 그러나 때론 차거운 도랑물처럼 가슴 밑바닥을 흘러내리는 고독의 소리를 듣습니다.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나와 같은 고독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그러한 순간을 아낍니다. 수정처럼 맑고, 호수처럼 깊은 순간, 그 순간에 한겹 한겹 외상을 갈아 입으며 성장해가는 자아를 지켜봅니다. 슬픔은 슬픔이어서, 기쁨은 기쁨이어서 영롱한 색채로 남습니다. 난 그 영롱한 빛갈의 순간들이 지닌 환희와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계절의 바뀜을 따라 창조의 의욕은 입술을 태우며 몸부림합니다. 그럴땐 토해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겁니다. 몇 줄의 시를 쓰고, 수필을 씁니다. 일기장의 좁다란 칸들을 메꿉니다. 때로는 기막힌 만족을, 때로는 지독한 허탈을 느낍니다. 그러곤 언젠가 다시 토해내지 않고는 못 배길 무엇인가를 서서히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혼자서 앓고, 혼자서 살젠 여러 해가 지나갔읍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읍니다. 적어도 일생에 하나쯤은 장편을 남기겠다고. 그것은 내 생애에서 주어모은 찬란한 조각들, 비웃음을 받드라도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나만의 교향악, 대 서사시이어야 된다고.

어느 잡지를 읽다 장편소설 모집 기사를 읽었읍니다. 4개월의 여유를 두고 시작했읍니다. 혼자서 집을 지키는 동안, 두 세시간을 쓰는데 몰두하는 시간으로 쓸어넣었읍니다. 주위의 소음이 전혀 들려오지 않을 정도의 무아의 경지에서 글을 쓰는 기쁨은 나를 듯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곤질긴 우울과 초조가 피곤으로 덮쳐들어 피롭히기도 했읍니다. 예정대로 석달간에 1,500매의 장편을 썼읍니다. 그러나 수정, 정서를 해야 하는 나머지 한 달에 나의 체력은 그걸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소설을 쓴 것을 안 사람은 남편뿐이었읍니다. 그인 못내 서운해하는 나를 위로했읍니다. 내년이 있지 않냐고.

그후 지독한 더위가 지나간 후 정말 우연히 우린 밥상머리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던 것입니다. 연속 방송극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방송극으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이가 물었읍니다.

"밑져야 본전인데" 하고 웃으며.

난 그럴 수 없다고 했읍니다. 적어도 나의 것은 순수문학이어야 된다고.

난 가을을 탑니다. 가을이면 무엇인가를 끝맺음하고 싶은, 그냥 해를 넘겨서는 안될거 같은 갈증을 느낍니다. 두달도 채 되지 않는 마감기일이 내게 긴장과 유혹을 던졌읍니다. 방송극의 기술적인 것에 난 자신이 전혀 없었읍니다.「라디오 드라마 작법」이라는 얄팍한 책 한권을 읽고 대담하게 덤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설과「라디오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므

로 두달안에 정서까지 끝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읍니다.

원고를 내고나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그이 말대로 「밑져야 본전」이고, 빈틈없는 소설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당선 통고를 받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읍니다. 습작도, 지도도 없이,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인지의 자신도 없이 쓴 첫 작품이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었읍니다. 처음 써서 대뜸 당선된 예는 전무하다고 심사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읍니다. 대개들 여러해 애를 쓰고, 고생을 한다고. 그분들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억세게 운이 좋게 아니면 천재를 넘어선 수재랍니다. 그러나 난 전자에도 후자에도 자신을 연관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평소에 지니고 살아 온 문학에의 열애와 생활화가 한꺼번에 열매를 얻은 것이라고.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결함을 지녔지만, 순수하고 참신한 분위기와 짙은 문학성이 130여편의 경쟁을 물리쳤다고 들었읍니다.

새해 첫 날부터 방송을 듣는 기쁨은 컸읍니다. 그러나 내가 쓴 것의 백프로가 다 반영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울분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읍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한 계희라는 간호원입니다. 흔히 청취자들이 계희라는 이름대신 "그 간호원"하고 말하는 걸 들었읍니다. 계희는 청순하고 마음씨 고운 빈틈없는 간호원 입니다. T.b. 라는 병고를 겪으므로 해서 오히려 몰랐던 새로운 삶의 세계를 찾아낼 줄 알고, 그래서 정화된 아름다운 생활을 간추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계희의 언행은 환자들에게 부드럽고 환한 위안으로 느껴집니다. 죽은 첫사랑의 남자의 이메쥐를 지닌 환자 김현우를 속으론 사랑하지만, 냉정한 의식으로 그를 간호해야 하는 것이기에 겉으론 그걸 뵈이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러나 그를 절망에서 끌어올리려 최선을 다합니다.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옛날얘기를 해주며 「영원을 꿰 뚫을 한 순간의 행복」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결국 환자는 재수술 도중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거의 계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빈사상태에 들어가면서까지 계희가 면회올 때를 기다리며 재수술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계희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죽음에서 끝난다."며 눈나리는 밤거리를 헤맵니다. 그러나 계희에겐 그 커다란 찬란한 슬픔을 넘어 또 다시 이어질 파도같피처럼 무수한 주름으로 밀려올 세월을 받아들일 바탕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자기의 운명을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며 찬찬히 살아갈 수 있는 운명애를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간 현우는 남자지만 너무 연약했던 것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후루루 떠는, 여유를 가지고 받아드릴 줄 모르는 귀엽도록 순진한 대학생 입니다. 그와 차원높은 행복의 순간을 나누었던 바닷가에서 계희가 웨칩니다.

"김 현……우…씨…"

거센 바람과 파도같대에 접히며 슬프게 울먹여 퍼져가는 계희의 목메인 부름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세상엔 애쓴다고 꼭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픈 얼굴을 합니다. 그 슬픔의 그늘에서 값진 아름다움을 보곤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극한 슬픔을 위한 축배!"를 작중인물로 하여금 웨치게 할만큼 슬픔을 아는 한 사람들은 환희를 알 것이며, 그 기쁨에 묻혀 인생의 진실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 완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간호원이란 직업을 피알하고 미화하겠다는 기치 아래 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만, 청취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아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원장님의 초청으로 인천요양원에 갔을 때 환자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간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참으로 환자를 알고, 위안을 줄 줄 아는 간호원상이라고. 주제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천사」가 오래 가슴 가슴에 머무러주길 바라는 욕심입니다. 내가 가졌던 간호원의 직업을 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품중에 한계희가 말합니다.

"간호는 제게 직업이라기 보다 예술인 거예

요. 아픈 사람들, 그들은 생명 이외의 무엇도 욕심내지 않아요. 오직 살고 싶다는 단순한 메어달림, 그들에게서 전 가장 순진한 인간의 본질을 느껴요. 그들을 간호하며 전 빠가 저려드는 희열을 느끼고 해요. 아픈 사람들, 그들은 다 어린애예요. 어린애들은 무슨 짓을 해도 밉지 않은 것처럼 전 그들 앞에 한없이 너그러워지곤 해요."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느끼며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렇다면 얼마나 고역스런 직업이겠읍니까? 물론 존경받고 대우좋은 직업으로 "간호"를 끌어올려야 하겠지만, 예술에 비교될 정도의 기본바탕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직접 임상에 나갈 수 없지만, 난 언제까지나 간호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는대로 간호원의 얘길 쓰겠읍니다. 편협하다든가 일방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에서. 애초에 쓴다는 것은 내게 욕심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조금히 덤빌 생각은 없읍니다. 차분히 쓰겠읍니다. 많은 청취자들께 언제까지고 참신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여운 있는 작품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친절과 도움이 나의 부족함을 밀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상식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주신 간호협회와 모교 간호학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본협회 고문 김활란박사 별세 ◆

〈고 김활란박사〉

1964년 부터 1970년까지 본협회 고문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김활란박사가 지난 2월 10일 오후 8시 8분 뇌일혈로 별세하셨읍니다.

우리 협회의 고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선구자이신 김박사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활약도 커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다락방상을, 그리고 막사이사이상을 받으셨던 우리나라 여성의 자랑이며 큰 별이셨읍니다.

특히 간호사업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어 1950년에 이화대학 의약대학 내에 杏林院이란 이름으로 간호교육과를 설치하신 일이 있고, 195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호학과를 신설 간호교육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며 작년에 다시 간호대학으로 승격되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또 1964년도에 있었던 본협회 총회에 직접 나오시어 "여성의 갈 길과 각오"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고, 1968년초에는 직접 본협회를 방문하시어 "가장 일 잘하는 여성단체"라고 격려해 주시던 맑고 잔잔한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심장의 고동이 그친다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마지막 유언으로 깊은 신앙을 심어주고 가신 김박사님께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비옵니다.